

동향&이슈

NO. 1

2020.04.06

여수 · 대불국가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

CONTENTS

이슈1/여수 · 대불국가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결과

이슈2/목포지역 택시 전액관리제의 현황과
정착방안

동향/코로나19관련 노동 권익상당

우리센터 동정



전남노동권익센터



전남노동권익센터

[동부권] 전라남도 순천시 중앙로 112. 3층 전화 : 061)723-3860~1

[서부권] 전라남도 무안군 남악로 234. 트리폴리앙프라자 A동 304호
전화 : 061)287-3860~1 팩스 061)287-3862

홈페이지 : <http://www.jecec.kr> /편집인 : 정책기획팀 문보현 / 발행인 : 문길주

이슈 1

여수·대불국가산업단지 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결과

– 여수·대불산단 작업복 세탁소, 통근버스, 조식 식당

1. 국가산업단지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역사를 시작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문길주

2. 여수·대불산단노동자작업복세탁소, 통근버스, 조식식당수요 조사결과

전남노동권익센터정책기획팀장 문보현

I. 들어가며

II. 여수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결과

III. 대불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통근버스운행·
조식 식당 수요조사결과

IV. 맺으며

국가산업단지노동자작업복세탁소의 역사를 시작하다

전남노동권익센터장 문길주

- “이놈의 작업복 제발 집으로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는 노동자의 소망-

노동자작업복 공동세탁소는 2017년 광주 근로자건강센터에 근무할 때, 하남산단 노동자들이 건강 상담을 받으러 오면서 종이가방에 작업복을 넣어서 다니는 모습을 보고 그 필요성을 느꼈다. 산단 내 50인 미만의 작은 사업장에는 회사에 세탁 시설이 없거나,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1주일 내 입었던 작업복을 집에 가지고 가서 세탁한다고 한다. 화학물질을 다루는 노동자들은 가족의 빨랫감과 섞이면 혹여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불안을 느끼며 “이놈의 작업복 제발 집으로 안 가져갔으면 좋겠다.” 라고 토로하였다.

어느 노동자의 소망은 지자체가 나서서 그들의 안전과 건강에 조금만 힘을 보태 주면 될 일이라 싶어, 2018년 광주시장선거에 출마하는 후보들에게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건립을 제안, 모든 후보가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렇게 해서 광주에 불게 된 노동자작업복 세탁소 바람은 시의회의 예산삭감 등 역경을 넘어 마침내 올해 7월에 문을 열게 되었다. 한편, 광주의 움직임을 눈여겨본 경남도는 발 빠르게 움직였다. 도의 사회혁신추진단이 노사단체와 협업체제를 마련, 2019년 11월에 한국산업단지공단 김해지사 1층에 작업복 공동세탁소를 만들어 전국 1호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다.

전남에는 여수, 대불, 광양 등 3개의 국가산단과 광주와 전남 경계에 빛그린산단이 만들어지고 있다. 국가산단이라고는 하지만 50인 미만 노동자들이 일하는 소규모 사업장이 70%를 차지, 작업환경은 물론 노동복지 또한 아주 미흡하다.

- 여수·대불국가산단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수요-

우리 센터는 개소 후, 첫 번째 조사사업으로 2월 3일부터 8일 동안 전국플랜트노동조합 여수지부와 함께 여수산단 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를, 2월 10일부터는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대불산단의 중소사업장 노동자들 대상으로 작업복세탁소 외에 통근버스, 조식 식당 수요조사를 하여, 지난 3월 5일에 여수시청, 3

월 11일에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각각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

여수산단 작업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은 93.2%로 노동자들이 용접, 도장, 열처리 과정에서 분진 등 각종 유해 물질에 늘 노출되는 상태이며, 응답자의 91.6%가 작업복을 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지 못해 자기 비용으로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어 노동복지 수준을 짐작케 하는 대목이다. 또한 작업복 세탁 비용 역시 95.2%가 자기 부담이며, 세탁은 주로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 종료 후에 샤워하지 못하고 퇴근하는 비율이 99.6%에 이르러 여수산단 건설노동자들은 사업장에서 작업복 세탁은 물론 씻을 수조차 없는 아주 열악한 작업환경에 놓여있었다.

대불산단 작업복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 64%가 화학물질, 용접, 분진, 도장 작업 과정에서 유해 물질에 노출된 상태이고, 작업복 세탁은 응답자의 75%가 집에서 세탁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통근버스 운행 수요는 응답자의 94%가 자가용 차량으로 출퇴근하고 있었다. 다른 지자체나 산단은 노동자 편의와 교통체증, 대기환경 오염 저감을 위해 통근버스가 운행되고 있으나, 대불산단은 통근버스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시급한 대책이 필요하다. 또, 조식 식당 수요 조사에서는 대불산단 노동자의 절반가량이 아침 식사를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수산단은 석유화학 플랜트, 대불산단은 조선업으로 특성상 유해 물질이나 중금속 등이 잔뜩 묻은 작업복을 집으로 가져가 세탁함으로써 2차, 3차 노출이 이뤄지고 있어 가족의 건강권까지 침해되는 등 전남지역 국가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샤워 시설, 통근버스 등 노동자의 건강복지에 대한 절실함을 알 수 있었다.

전라남도 인구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많은 우수 인력 외부 유출이 걱정스럽다. 양질의 일자리 마련이 시급한 현안이다.

노동자의 최소한의 권리이자 노동복지의 기본인 세탁할 권리, 작업 후 샤워할 권리가 조속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전남 노사민정이 함께 고민하고 힘을 모은다면 이른 시일 내에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등의 시설이 갖춰질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 그 출발점을 지났다.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험로를 걸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조식 식당, 통근버스 실태조사를 위해 2월 추운 겨울을 길거리에서 함께 해주신 여수산단 건설노동자, 대불산단 노동자 여러분께 이 지면을 통해서나마 감사의 인사를 올린다.

여수·대불산단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통근버스, 조식식당 수요 조사결과

전남노동권익센터정책기획팀장 문보현

I. 들어가며

산업현장에서 노동자의 산업재해와 건강 장애 예방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센터에서는 크나큰 이슈보다는 아주 기본적인 작업복이나 통근버스, 조식 식당 등 노동권익과 복지 차원에서 살펴봐야 할 것을 먼저 확인하기로 하였다. 각 산단의 노동단체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통해 현안을 파악, 국가산업단지 내에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에 관련된 시설의 하나인 공동 작업복 세탁소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전남 도내 국가 산업단지 2곳(동부는 석유화학 플랜트가 집중되어있는 여수산단, 서부는 조선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영암 대불산단)의 중소기업장 노동자를 대상으로 긴급하게 간이 세탁소 등에 관한 수요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3월 5일과 같은 달 11일에 각각 여수시청과 전남도의회 브리핑 룸에서 발표하였다.

설문조사는 여수산단에서 전국플랜트건설노동조합 여수지부와 대불산단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와 각각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었던 지방의회의원들은 작업복세탁소 건립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작업복 세탁소의 설치는 물론 이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이처럼 간략하게 조사 배경과 과정 그리고 결과공표 이후의 대응까지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각각 산단 별로 여수는 노동자 작업복세탁소, 대불은 작업복세탁소, 통근버스 운행 및 조식 식당 수요조사 결과를 각각 요약정리하고 이에 따른 정책 제언을 한다. 여수는 통근버스, 조식 식당 문제는 해결 혹은 개선과정에 있고, 대불은 통근버스, 조식 식당 등에 대한 논의를 이제 시작해야 한다.

II. 여수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수요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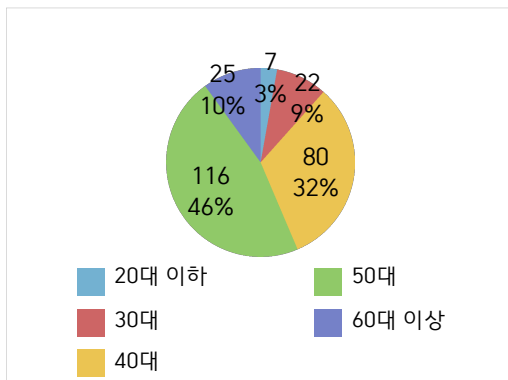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조 사 명: 여수국가산업단지 플랜트 건설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한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에 관한 수요조사
- 조사 목적: 산업단지 내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조사 방법과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서면조사(기간 중 작업에 종사한 노동자를 대상으로 함)
- 설문조사 표본 (500부), 유의미 설문조사서 250부
 - 설문 내용: 산업단지 노동자 작업복 공동세탁소 이용 수요 조사(18문항)
 - 작업복 지급실태, 오염된 작업복의 세탁장소, 산단 내 작업복 공동 세탁소 설치 필요 여부, 설치 시 시설 이용 여부 및 세탁비용 본인부담률 등을 내용으로 함
 - 산업단지 내 작업 중인 조합원은 12,000명(조사기간 내), 석유화학 및 화학 관련 플랜트 건설 업무에 종사함
- 조사 기간: 2020년 2월 3일부터 2.10일까지(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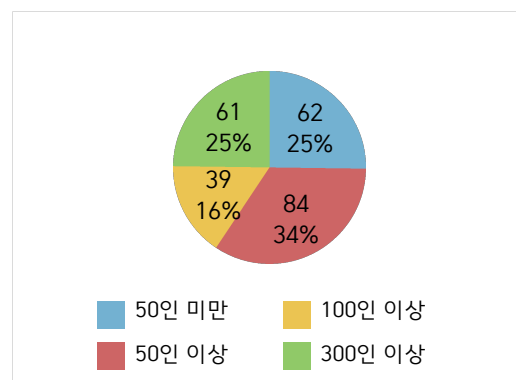
2. 주요결과 요약

1) 일반 사항

-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구성은 남성 비율이 높고(전체 응답자의 91%),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전체 응답자의 88.4%를 차지, 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짐
 - 연령별 분포는 50대 46.4%, 40대 32%, 60대 이상 10%, 30대 8.8%, 20대 2.8% 순으로 50대 이상이 56.4%로 나타남
- 근무 사업장 규모는 50인 이상 100인 34.1%, 50인 미만 25.2%, 300인 24.8%, 100인 이상 300인 미만 15.9% 순으로 50인 이상 30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5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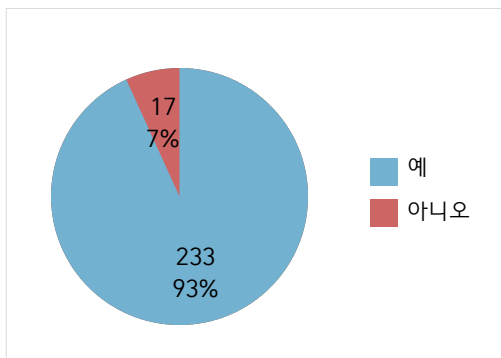
[그림 1]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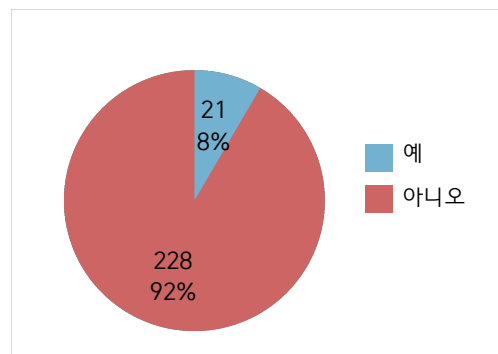
[그림 2] 소속 사업장 규모

2) 작업현장과 작업복관련 실태

-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이 93.2%,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작업장에서 용접, 도장, 관 교체 등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작업복을 지급하는 사업장은 전체 응답자의 8.4%에 불과하고, 91.6%가 사업장으로부터 작업복을 받지 못하고, 본인이 단순 작업복을 구매하여 착용하고 있음
 -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플랜트 건설의 업무 분야에 따라 작업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적절한 기능을 갖춘 작업복(개인보호구, 안정장비 외에)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할 것이나, 현행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항목에서 작업복은 제외되어 있음¹⁾
 - 작업복은 노동자의 건강권과도 관련되는 사안이므로 향후, 법개정운동 등을 통해 의무지급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임



[그림3] 사업장의 유해물취급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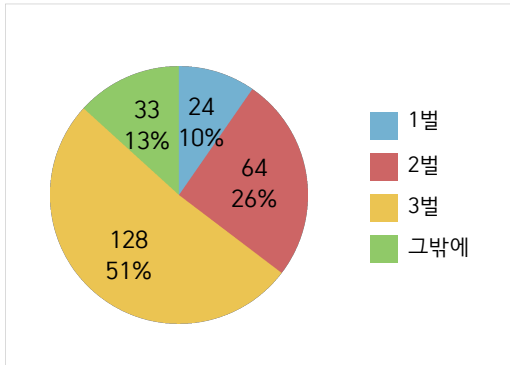


[그림4] 사업장의 작업복지급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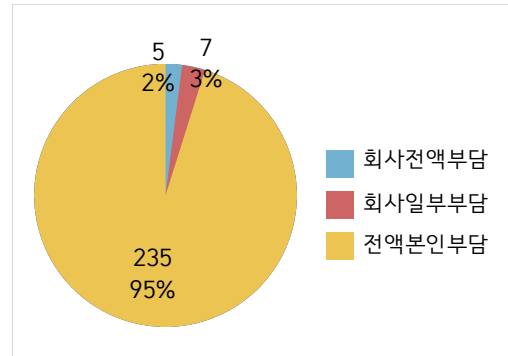
- 작업복은 전체 응답자의 77.1%가 2~3벌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량은 3벌(51.4%)이 가장 많았고, 2벌(25.7%), 그밖에 5벌~10벌 등 (13%) 순
- 작업복 세탁 비용은 전체 응답자의 95.1%가 본인 부담, 회사 일부 부담은 2.8%, 회사 전액 부담은 2%로, 회사에서 부담하는 비율은 5% 미만임
 - 세탁 장소는 전체 응답자 95.2%가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4%, 사업장 0%임
 - 가정에서 세탁하는 이유로는 사업장에 세탁소가 없어서라는 응답이 52.8%,

1) 작업자의 식별 등을 위한 단순작업복과 구분하여, 플랜트건설에서 재해나 노동자의 건강장애 예방목적의 개인보호구와 안전장구 범위에 기능성 작업복(방한복 등)은 당연히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하며, 현행법령의 개정이 필요함. 건설업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2020.1.23. 개정,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불가내역 항목 3.의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제7조 제1항 제3호 관련) 나 목에서 근로자 보호 목적으로 보기 어려운 피복, 장구, 용품 등, 1)작업복, 방한복 등을 들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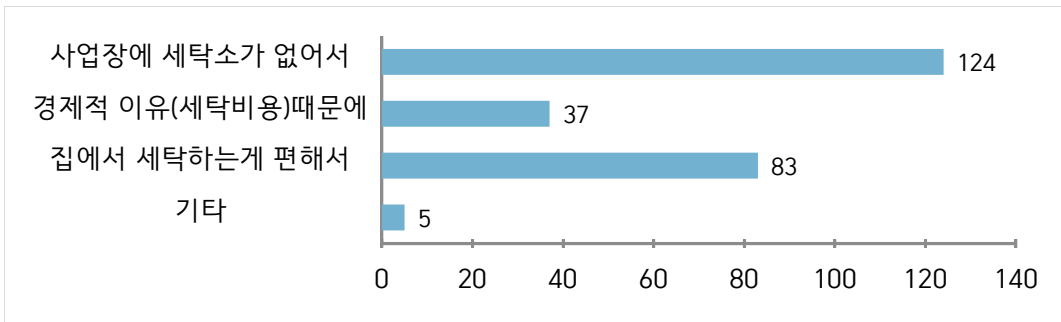
집에서 세탁하는 게 편해서 35.3%, 세탁 비용이 부담되어서 15.7%로 나타나, 사업장에 세탁시설 등이 갖춰져 있지 않음을 알 수 있음



[그림5] 작업복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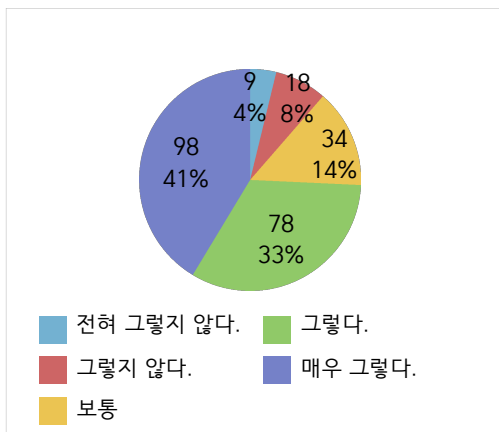


[그림6] 작업복 세탁비용 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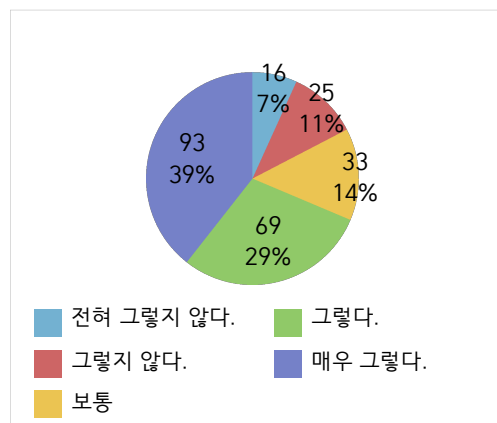


[그림7] 가정에서 세탁하는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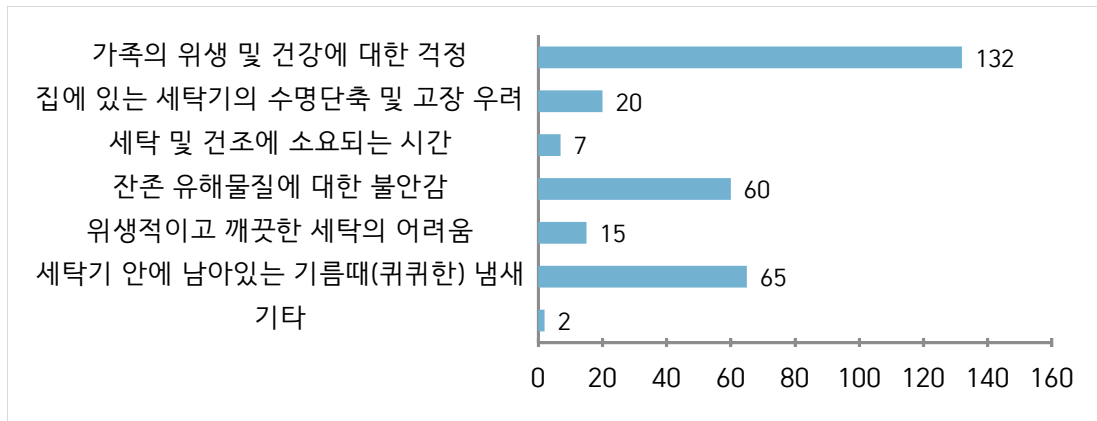
- 가정에서 세탁할 때 세탁조의 오염물질 잔류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오염이 우려된다고 전체 응답자의 74.3%(그렇다 32.9%, 매우 그렇다 41.4%)가 답하였고,
 - 가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때의 애로점으로는 가족의 위생과 건강염려 52.8%, 세탁조 안에 붙어있는 기름때와 냄새 26%, 잔존유해물에 대한 불안감 24%로 가족과 자신의 건강장애를 염려하고 있음



[그림7] 오염물질 잔류, 교차오염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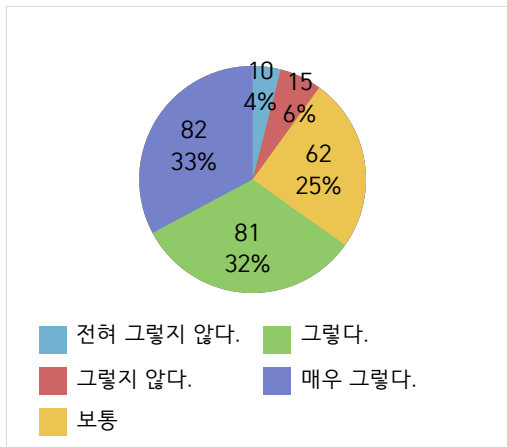


[그림8] 세탁비용의 경제적 부담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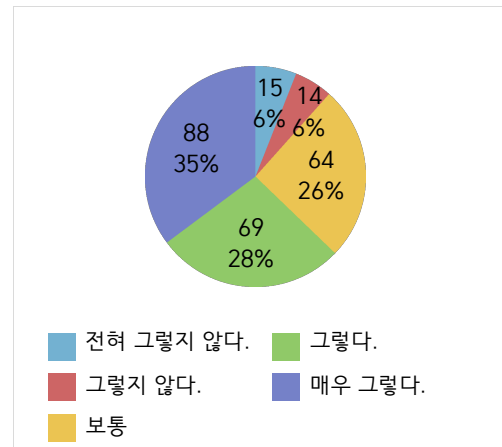


[그림9] 가정에서 세탁 시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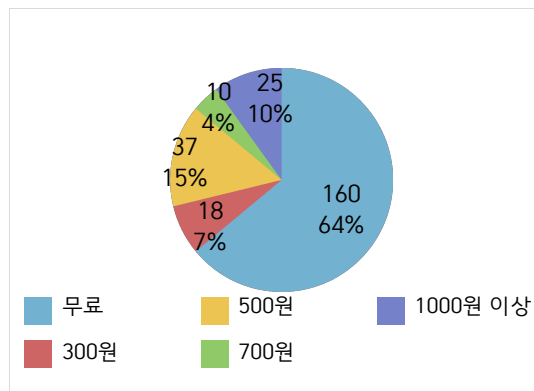
- 작업복 세탁소 설치 필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65.2%(그렇다 32.4%, 매우 그렇다 32.8%)가 설치에 긍정적임
- 세탁소가 설치된다면, 62.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비용으로는 무료 64%, 500원 정도 14.8%, 1000원 이상 10%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용의사가 있으며, 무료이용을 선호함



[그림10] 세탁소 설치 희망



[그림11]세탁소 설치 시 이용의사



[그림12] 노동자의 세탁비용부담금

3) 결론

-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의 작업복 보유 수량은 평균 2.5벌 정도이며, 사업장에서의 작업복 지급 비율은 8.4%에 그쳐, 노동자의 91.6% 본인 부담으로 단순 작업복을 구매하여 착용
- 10명 중 9.5명 이상이 집에서 세탁(95.2%)하고 있으며, 세탁 시에 오염물질 잔류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다른 옷)오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74.3%에 이릅니다
-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은 93.2%로, 단순 작업복 착용만으로 건강장애를 예방하기 곤란할 것으로 생각되며, 작업에 필요한 기능성 작업복 지급이 요구됨
- 세탁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는 95%, 일부 부담 3%, 사업장 부담은 2%에 그침
-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각각 65%와 62.8%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
- 작업세탁소 이용 시 적정 세탁 비용은 무료를 가장 선호(64%)하며, 1벌당 500원(15%), 300원(7%) 순임

3. 정책적 제언

1)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방향

-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세탁소 설치, 운영 방향을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첫째, 노동자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사 결과, 노동자들의 작업복 세탁 비용은 자기 부담률이 높았고, 세탁소 이용의사를 밝힌 노동자들의 가장 우선적 고려사항은 비용부담이었음
 - 월평균 개인 부담 작업복 세탁 비용과 세탁 횟수, 노동자의 요구, 욕구,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적정 개인부담 비율(지원 금액)을 정하고 단계별로 증·감액을 검토해야 할 것임
 - ※ 현재 가동 중인 김해산단의 공동 작업복 세탁소와 영암군의 대불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운영계획(안)에서는 1벌당 노동자부담액을 500원으로 책정함
- 둘째, 양질의 충분한 세탁설비를 도입하고, 세탁기술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조사 결과, 집에서 세탁 시 가족의 위생 및 건강에 대한 염려와 잔존 유해물질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작업복 세탁소에서 세탁하더라도 위생적이고 깨끗한 세탁, 잔존 유해물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 ※ 삼호현대중공업 사내 세탁소 이용 노동자 역시 위와 같은 불안감이 있음
- 업종별, 작업 내용에 따른 유해성 파악과 분류 세탁이 필요함(예를 들어, 도장, 기름, 화학물질, 용접 등에 따라)
- 따라서 세탁기, 건조기 등 양질의 충분한 세탁 설비를 도입, 세탁물의 특성에 따라 세탁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 이용자의 기대(깨끗한 세탁, 잔존 유해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셋째,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비용 지급방식과 세탁물 수거, 배달방식을 운용해야 함
 - 세탁물의 종량제 상시 정산, 월별 정산 방법 등과 지급방식을 이용자의 수요에 따라 사업장과 협의하여, 이용자의 편의와 이용률을 높여야 함
 - 세탁인력 이외에도 세탁비 지원 및 개인부담금 관리 인력과 세탁물 수거 및 배달인력이 필요함

2)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방향

- 첫째, 유해 물질 및 작업복 유해성에 대한 인식 제고 방안 마련 필요
 - 조사 결과, 대부분의 노동자가 작업복을 집에서 세탁하고 있음에도 세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차오염 가능성, 자신과 가족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정도의 인식은 하나, 물질에 따른 영향의 정도에 대해서는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업종별 유해물질과 유해 물질이 환경과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파악하여, 사업장과 노동자, 시민사회에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세탁소 관리 전담인력의 배치 및 세탁 인력 전문 교육프로그램 운영 필요
 - 세탁인력, 행정 정산 지원인력, 수거 배달인력 그밖에 세탁소 관리 전담인력을 배치하여 유해 물질 및 작업복의 유해성 홍보 기획 및 운영, 세탁소 이용률 제고 방안 마련, 업종별 특성과 오염물질에 따른 세탁기술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기획, 운영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세탁소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셋째, 세탁소가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내 공단 및 산단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함
 - 정부의 일자리 정책 기조(소득 주도, 노동 존중, 사회적 가치실현 등)와 노동이 당당한 전남의 정체성과 위상에 맞게 정규직(무기 계약직 포함) 일자리,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보장, 일과 생활의 균형 실현 등 양질의 일자리와 직장문화를 조성해야 하며, 여수산단, 광양산단, 대불산단 등 국가산단을 시작으로 주변의 공단 및 산단에 작업복 세탁소 설치를 확대해나가야 함
- 넷째, 세탁소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 민관 협치 활성화 필요
 - 세탁소설치운영에 민(기업)과 관(행정), 노동자 인권 및 건강 관련 관계 기관과의 협력과 연대를 지향하므로 공동 논의와 실행구조를 만들어 세탁소 운영의 효율성과 공공성, 이용률 제고를 담보, 지역 내 노동인권 존중문화 확산을 도모해야 함
 - 아울러 세탁소 설치를 계기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기업(노동)복지 격차 완화를 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구상, 실행해야 나가야 할 것임
- 마무리
 - ※ 현재 작업복세탁소 사업을 시행 중인 김해산단(경남), 추진 중인 하남산단(광주), 대불산단 내에 세탁소 설치 계획의 구체안을 내놓은 영암군 등이 활동하고 있음
 - ※ 성공적인 세탁소 설치 운영을 위해서는 특히 산단 협의회(입주기업대표자 모임), 노동조합, 해당 시군과 의회 등이 운영위원회를 구성 실질적으로 협조 내지 실천이 가능한 조직마련이 우선임
 - ※ 작업복 세탁소는 여수산단 내 플랜트 건설 노동자뿐만 아니라 다른 업종의 노동자들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세탁소의 이용 대상이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이 결과를 공표하는 장(기자회견, 정책토론회 등)을 마련, 세탁소 설치를 위한 방안을 세우도록 논의 활성화 하는 것이 바람직함

Ⅲ. 대불국가산업단지 노동자작업복세탁소 등 수요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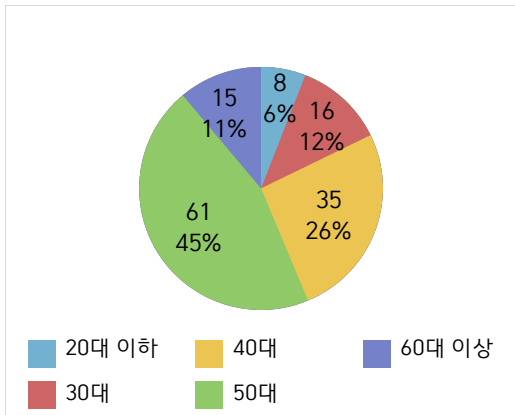
1. 조사 개요

- 조 사 명: 대불산업 내 노동자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작업복 세탁소·통근버스·조식 식당 설치 등에 관한 수요조사
- 조사 목적: 대불산단 내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통근버스운행·조식 식당설치 필요성에 대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의견 수렴
- 조사 방법과 대상: 구조화된 설문지를 통한 면접조사(기간 중 중소기업 근무 노동자)
- 설문조사 표본(150부), 유의한 조사서 135부
 - 설문 내용: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통근버스운행·조식 식당설치 필요성 및 이용 수요 조사(총 33문항)
 - 작업복세탁소설치 필요여부, 설치 시 이용여부 및 세탁 비용 자기 부담률 등
 - 통근버스운행의 필요여부, 운행 시 이용여부 및 운임의 자기 부담률 등
 - 조식 식당설치의 필요여부, 설치 시 이용여부와 식대 수준 및 자기 부담률 등을 내용으로 함
- 조사 기간: 2020년 2월 10일부터 2월17일까지(8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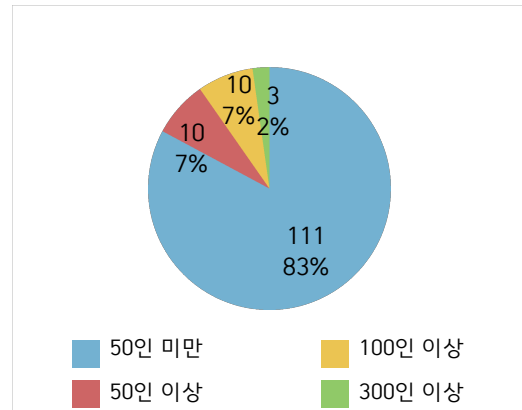
2. 주요결과 요약

1) 일반 사항

- 전체 응답자의 90%(122명)가 남성, 10%(13명)가 여성이며, 연령대는 40대 이상이 82%를 차지, 현장의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편, 청년층의 감소가 두드러짐
 - 연령별 분포는 50대 45%, 40대 26%, 30대 12%, 60대 이상 11%, 20대 6% 순으로 50대 이상이 56%이며, 결혼 상태를 보면, 전체 응답자의 80%가 기혼이며, 비혼 18%, 기타 1% 순
- 근무 사업장의 규모는 50인 미만 83%, 50인 이상 100인 미만, 100인 이상 300인 미만이 각각 7%이며, 300인 이상 2% 순으로 50인 미만의 사업장이 전체 83%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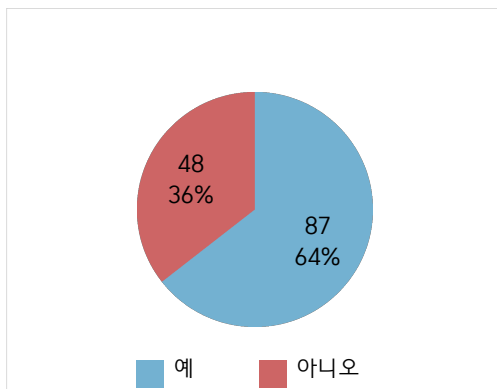
[그림1] 연령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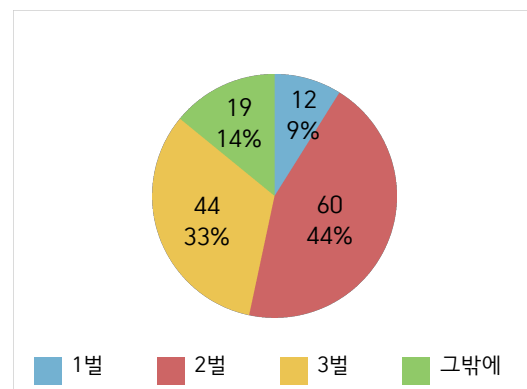
[그림2] 소속 사업장 규모

2) 작업현장과 작업복관련 실태

- 유해 물질(화학물질, 용제, 페인트, 용접 등)취급 사업장 근무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64%를 차지함
- 노동자의 보유량은 2~3벌이 전체 응답자의 77%로 나타났으며, 수량은 2벌(44%) 이 가장 많았고, 3벌(33%), 1벌(9%), 그밖에 14%(19명) 안에는 작업복이 없거나(2명), 5벌(6명), 10벌(2명), 수량 미기재(9명),



[그림3] 사업장의 유해물 취급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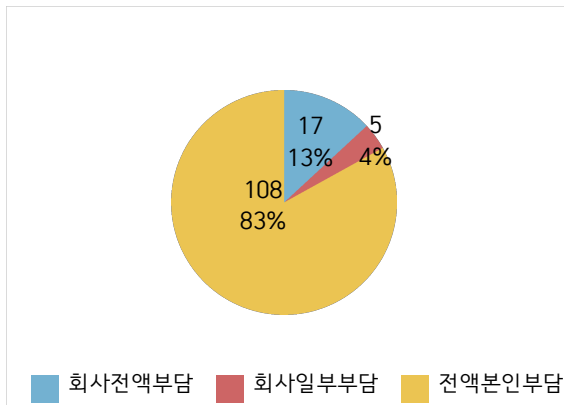


[그림4] 작업복 보유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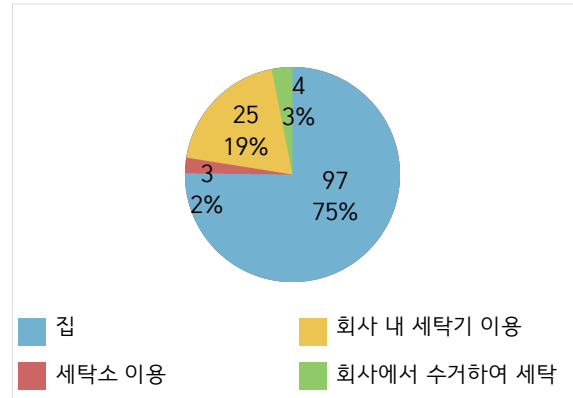
- 작업복을 입은 채로 출퇴근하는 비율과 평상복으로 갈아입는 경우가 각각 50%로 나타남
- 작업복 세탁 비용은 본인 부담 83%, 회사 일부 부담 4%, 회사 전액 부담은 13%로, 사업장의 비용 부담률보다 개인 부담률이 높음
 - 세탁 장소는 전체 응답자 75%가 가정에서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집 근처

세탁소를 이용하는 경우는 2%, 사업장 내 세탁기 이용 19%, 회사에서 수거하여 세탁하는 경우도 3%에 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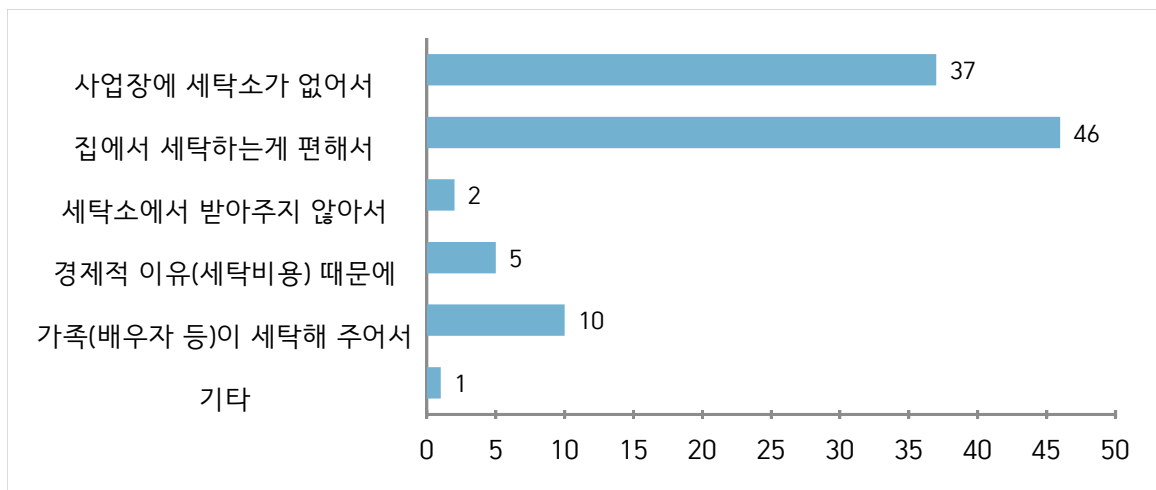
- 세탁을 가정에서 주로 하는 이유로는 집에서 세탁하는 게 편해서가 전체 응답자의 49%로 가장 많았고, 사업장에 세탁소가 없어서 37%, 가족이 세탁해 주어서 11%, 세탁 비용이 부담되어서 5%, 세탁소에서 받아주지 않아서 2%로 나타남



[그림5] 작업복 세탁비용 부담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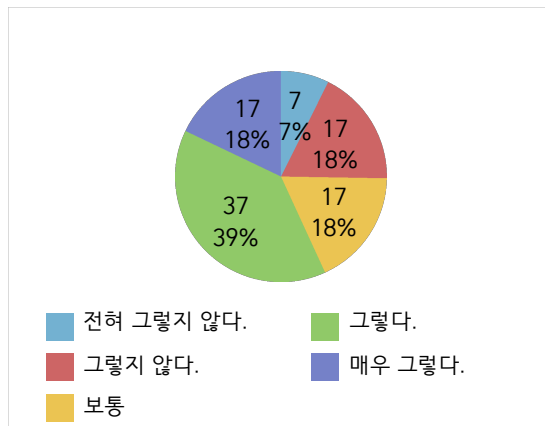
[그림6] 작업복 세탁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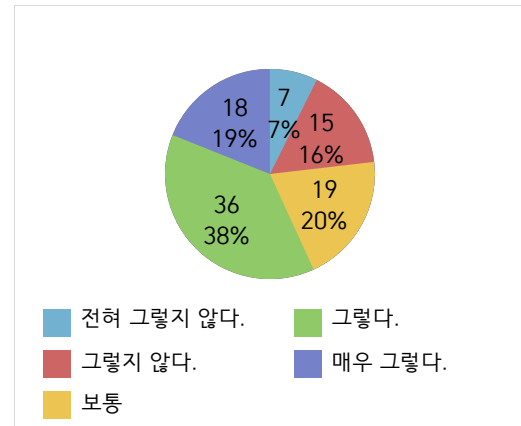
[그림7] 가정에서 세탁하는 이유

- 가정에서 세탁할 때 세탁조의 오염물질 잔존이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오염이 우려되느냐는 물음에 전체 응답자의 57%(그렇다 39%, 매우 그렇다 18%)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25%(그렇지 않다 18%, 전혀 그렇지 않다 7%)로 나타남
- 작업복을 세탁소에 맡기는 비용에 전체 응답자 57%(그렇다 38%, 매우 그렇다 19%)가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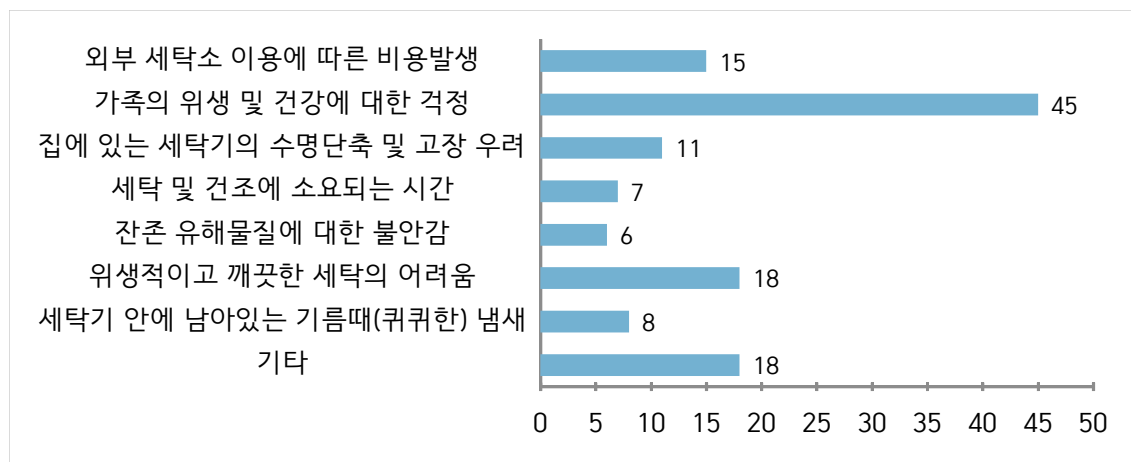
- 가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때의 애로점으로는 가족의 위생과 건강에 대한 걱정 35%, 위생적이고 깨끗한 세탁의 어려움 13%, 외부 세탁소 이용에 따른 비용 발생 12% 순으로 나타나, 가족과 자신의 건강장애를 염려하고 있음



[그림7] 오염물질 잔존·교차오염 염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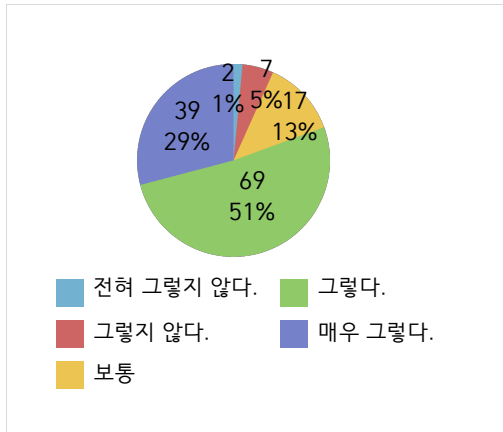


[그림8] 세탁비용의 경제적 부담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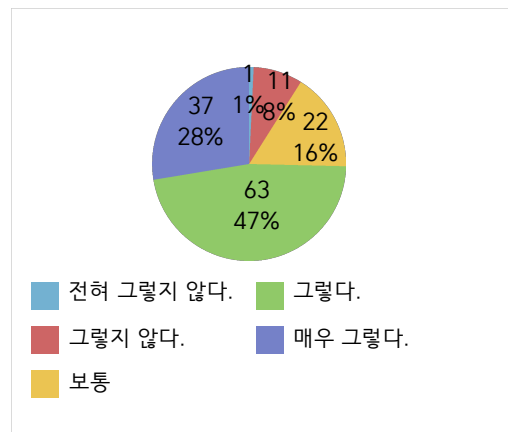


[그림9] 가정에서 세탁 시 애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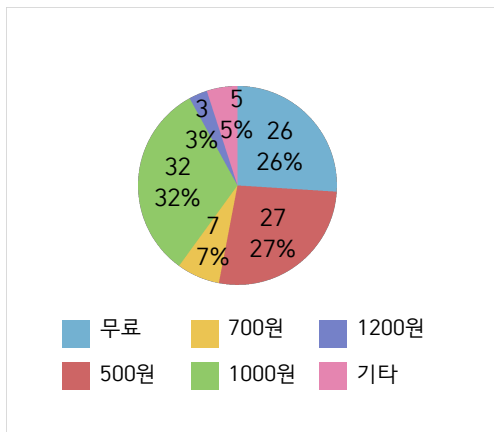
- 작업복 세탁소 설치 필요에 대해 전체 응답자의 80%(그렇다 51%, 매우 그렇다 29%)가 설치에 긍정적임
- 세탁소가 설치된다면, 75%(그렇다 47%, 매우 그렇다 28%)가 이용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고, 비용으로는 1000원 이상 32%, 500원 정도 27%, 무료 26%, 1200원 3% 순으로 응답,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가 이용의사가 있으며, 1000원 이상이라는 답이 높게 나오고 두 번째 500원, 3번째 무료이용이라 답함



[그림10] 세탁소 설치 희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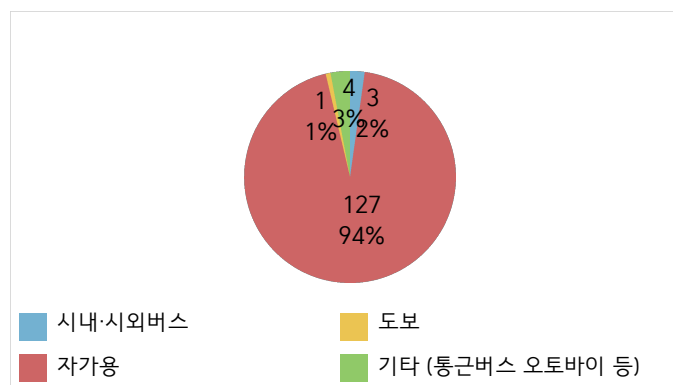
[그림11] 세탁소 설치 시 이용의사



[그림12] 노동자의 세탁비용 부담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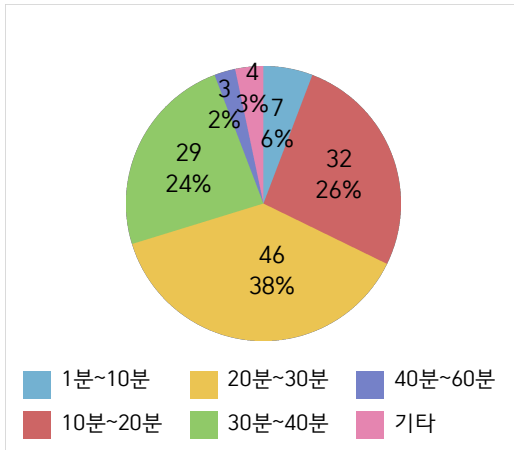
3) 통근버스 운행수요

- 출퇴근 때 이용교 통수단으로는 전체 응답자의 94%가 자가용 차량(자차, 카풀)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률은 2%, 기타(통근버스, 오토바이 등) 3% 순으로 자가용 이용자가 대부분을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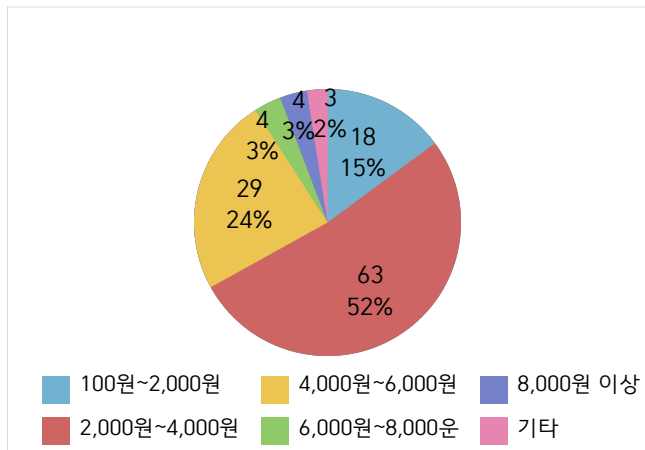


[그림13] 출퇴근 시 이용 이동수단

- 출퇴근의 평균소요시간은 편도 1회 기준 20분 이상 30분 미만 38%, 10분 이상 20분 미만 26%, 30분 이상 40분 미만 24%로 대체로 20~30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남
- 출퇴근의 비용은 편도 1회 기준으로 2000원 이상 4000원 미만 52%, 4000원 이상 6000원 미만 24%, 2000원 미만 18%, 6000원 이상 8000원 미만 3%, 8000원 이상 3% 순이며, 대체로 2000원 이상 6000원 미만이 7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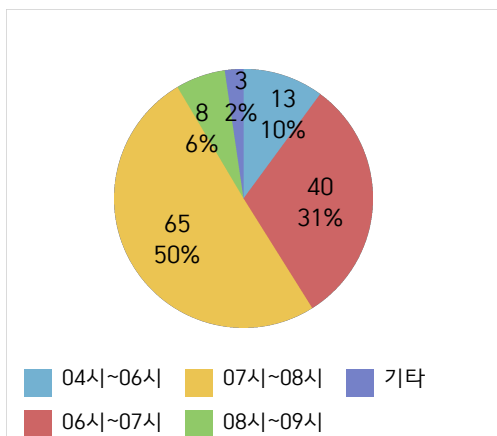


[그림14] 출퇴근 평균소요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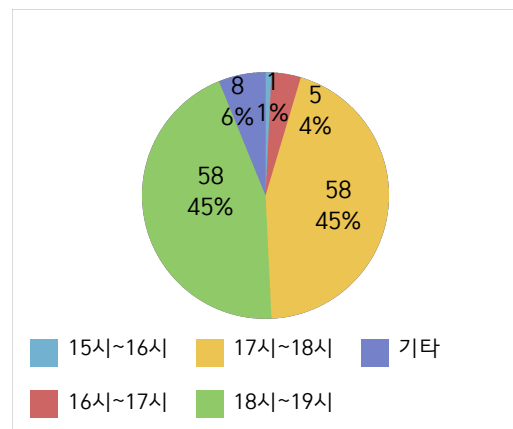


[그림15] 출퇴근 평균소요비용

- 출근 시간은 8시에서 9시 사이가 전체 응답자의 40%, 7시에서 8시 사이 35%, 6시에서 7시 사이가 22%로, 75%가 7시에서 9시 사이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퇴근 시간은 17시에서 18시 사이 45%, 18시에서 19시 사이 45%로 17시에서 19시 사이에 90%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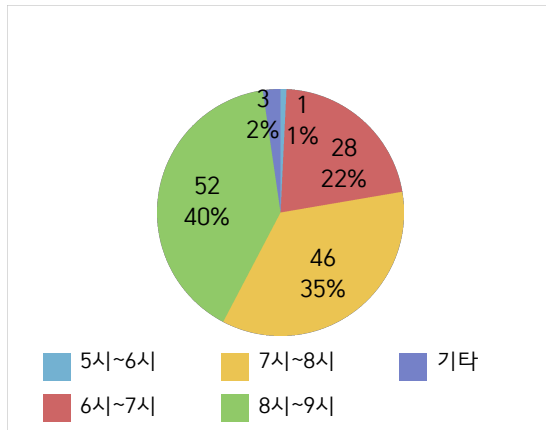


[그림16] 출근시간 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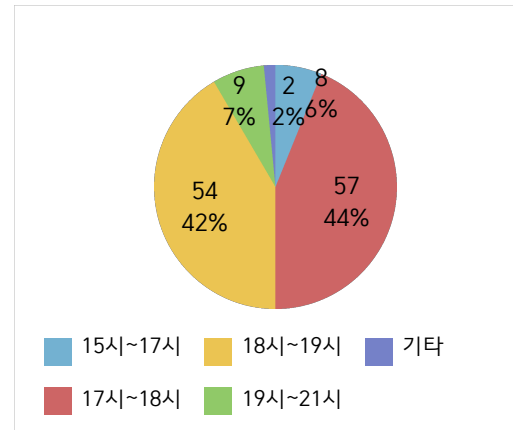


[그림17] 퇴근시간 대

- 출근하기 위해서 집에서 나오는 시간대는 7시에서 8시 사이 50%, 6시에서 7시 사이 31%, 4시에서 6시 사이 10%로 전체 응답자의 41%가 이른 시간에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실제로 퇴근하는 시간은 17시에서 18시 사이 44%, 18시에서 19시 사이 42%로 17시에서 19시 사이에 86%를 차지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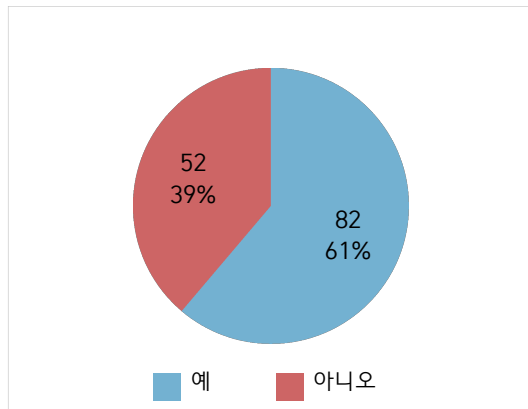


[그림18] 집을 나오는 시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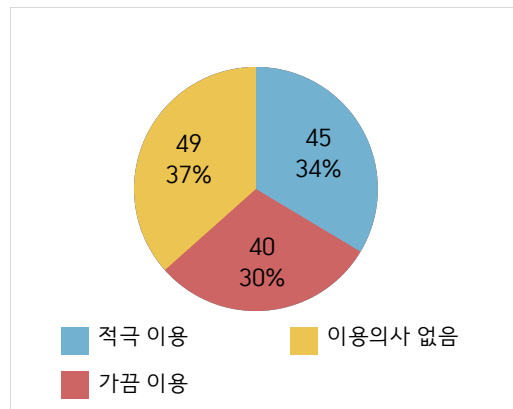


[그림19] 실제 퇴근시간대

- 대불산단 공유 통근버스 운행의 필요 여부에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82%가 필요하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하였고, 통근버스 운행 때에는 64%(적극 이용 34%, 가끔 이용 30%)가 이용의사를 밝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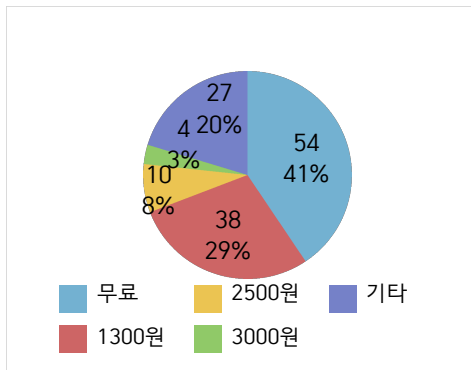


[그림20] 통근버스 필요 여부



[그림21] 통근버스 이용의사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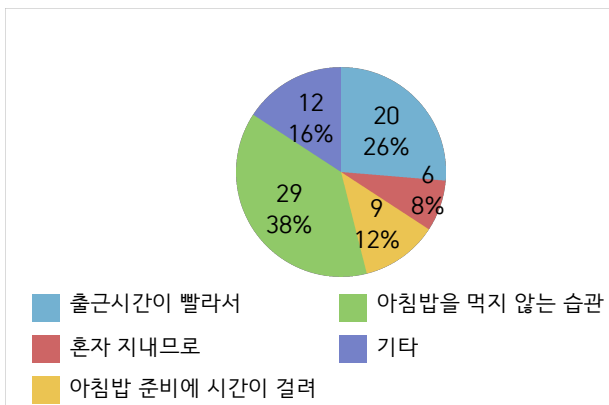
- 집 근처에서 사업장까지 통근비용(왕복) 중, 본인 부담의 최대금액(희망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41%가 무료를행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1300원 29%, 2500원 8%, 3000원 3% 그밖에 20%(27건 중 1000원 3건, 3800원 1건, 일반버스 요금 2건, 모르겠다 2건 미기재 18건)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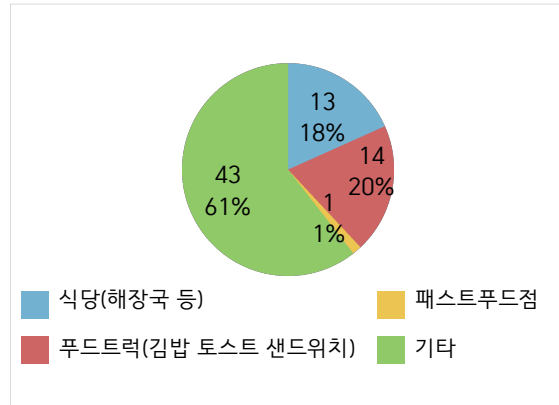
[그림22] 통근비용 부담 최대 금액

4) 조식 식당 수요

- 집에서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7%이며 그렇지 않은 경우가 43%임
 - 아침식사를 하지 않는다고 답한 43%는 그 이유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게 습관이 되어서 38%, 출근시간이 빨라서 26%, 아침밥 준비에 시간이 걸려 12%, 혼자 생활하므로 8%, 그밖에 16%(12건 중 사업장에서 조식지급 6건, 상세내용 미기재 4건, 늦잠 2건)로 나타남
 -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 출근시간이 빠르거나 아침밥 준비에 시간이 걸리거나, 혼자 생활하기 때문에 등, 환경적 요인 비율이 46%를 차지함
- 출근길에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전체 응답자 61%가 기타(44건 중 회사 구내식당 이용 7건, 라면을 먹는다 1건, 고구마와 우유 1건, 정해두지 않고 먹는다 1건, 상세내용 미기재 26건)응답을 하였고, 푸드 트럭(김밥, 샌드위치, 토스트)이용 20%, 식당(해장국 등) 이용이 18%로 나타남



[그림23] 아침식사를 거르는 이유



[그림24]출근길에 식사를 하는 경우

- 간편식(김밥, 토스트, 샌드위치, 떡 등 제공)조식 식당 개설의 필요성 관하여 전체 응답자의 58%(그렇다 40%, 매우 그렇다 18%)가 긍정적임
- 조식 식당 이용 시 본인이 부담할 수 있는 최고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39%가 1000원, 1200원 21%, 무료 16%, 500원 9%, 700원 5%순이며 그밖에 의견 9%(7건 중 2000원 3건, 5000원 1건, 상세내용 미기재 7건으로 조식 식당 식비로 1000원~1200원이 60%로 나타남

5) 결론

(1) 일반현황

- 대불산단 내 노동자의 연령층은 50대 이상이 56%이며, 30대 12%, 20대 6%로 현장의 고령화, 청년층의 감소 현상이 두드러짐

(2) 작업복관련 실태

- 유해 물질 취급 사업장 근무 노동자가 전체 응답자의 64%이며, 작업복 보유량은 평균 2.4벌(2~3벌 보유자가 전체 응답자의 77%)
- 10명 중 7.5명 이상이 집에서 세탁(75%)하고 있으며, 세탁 시에 오염물질 잔류나 세탁조를 통한 교차(다른 옷)오염 우려가 있다고 생각하는 노동자는 57%에 이르고, 가정에서 유해 물질에 오염된 작업복을 세탁할 때의 애로점으로 가족의 건강과 위생에 대한 걱정이 35%로 나타나, 가족과 자신의 건강장애를 염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세탁비를 전액 개인이 부담하는 사례는 83%, 일부 부담 4%, 사업장 부담은 13%로 나타났으며, 세탁소에 맡기는 비용을 부담으로 여기는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7%를 차지함
- 작업복 세탁소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각각 80%와 75%대로 긍정적인 의견을 내놓음
- 작업복 세탁소 이용 시 적정 세탁비용은 1벌당 1000원 이상이 35%(1000원 32%)로 나타났고, 500원 27%, 무료가 (26%) 순으로 나타나 500원~1000원대가 과반수를 차지함

(3) 통근버스 운행수요

- 출퇴근 이용 교통수단으로 전체 응답자의 94%가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며, 출퇴근 때 평균소요시간은 20~30분으로 나타났고, 비용은 2000~6000원 미만이 76%를 차지함
- 대불산단 공유 통근버스 운행은 전체 응답자의 82%가 필요성을 인식하며, 64%가 이용의사가 있다고 답함
- 통근(왕복) 비용 중 이용자부담의 최대금액은 전체 응답자의 41%가 무료운행을 선호, 1300원(29%), 2500원(8%) 순으로 나타남

(4) 조식 식당 설치수요

- 아침식사를 하고 출근하는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57%이나, 때때로 아침식사를 거르는 경우도 있어 노동자의 절반가량은 아침식사를 못하고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남
- 아침식사를 못하는 이유로는 출근시간이 빠르다거나 식사준비에 시간이 걸려서, 혼자 생활하기 때문이라는 환경적 요인이 46%가량을 차지, 조식 식당의 설치 필요성이 있음
- 출근길에 아침식사를 하는 경우, 라면, 고구마, 우유, 샌드위치, 해장국 등 다양한 형태를 보임
- 조식 식당(간편식으로 김밥, 토스트, 샌드위치, 떡 등 제공)설치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58%가 필요, 20%가 필요 없다고 답함
- 조식 식당 이용 때 본인 부담 최고액은 전체 응답자의 39%가 1000원, 21%가 1200원, 16%가 무료, 9%가 500원 순으로 나타남

3. 정책적 제언

1)-1 작업복 세탁소 운영 방향

- 조사 결과 여수산단과 거의 유사한 환경이며, 노동자작업복 세탁소의 설치 운영에 있어, 노동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양질의 충분한 세탁시설 도입 및 세탁 기술의 전문성 강화 노력이 요구됨
 - 업종별, 작업 내용에 따른 유해성 파악과 분류 세탁이 필요함(예를 들어, 도장, 기름, 화학물질, 용접 등 업무내용 고려)
 - 세탁물의 특성에 따라 세탁 기술의 전문성을 확보, 이용자의 기대(깨끗한 세탁, 잔존 유해물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노동자 부담 등에 관하여는 여수산단의 작업복 세탁소 운영방향을 참조할 것
 - 현재 영암군의 대불산단 내 작업복 세탁소 운영계획(안)에서는 1벌당 노동자 부담액을 500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현재 작업복 세탁소를 운영 중인 경남 김해산단의 경우, 노동자부담액은 500원임

1)-2.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방향

- 여수산단에서 제안한 내용과 마찬가지로 첫째, 유해 물질 및 작업복 유해성에 대한 인식 개선방안 마련 필요하며, 둘째로 세탁소 운영요원의 전문성, 즉 업종별 특성과 오염물질에 따른 세탁기술의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등 체계적인 세탁소 운영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 세탁소가 양질의 공공형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 지역 내 공단 및 산단에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하며,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 민관 협치의 활성화가 필요

2) 통근버스 운행에 관한 지원 방향

- 첫째, 노동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사 결과, 무료운행을 희망하는 비율은 16%로 그리 높지 않고, 1300원~2000원 선을 적정하게 생각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 적정 개인 부담비율(지원 금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 이용률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 감액을 고려해야 함
- 둘째, 통근버스 운행은 다양한 의미를 가지며 지원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몇 가지 유의할 사항
 - 고용노동부의 산업단지 환경개선 중 통근버스 임차지원 사업(2020 ~2022까지, 1년/5억 원까지 지원 등의 정책지원이 있음
 - 대기오염 심각으로 2020.4월부터 대기관리권역 남부권(전남, 목포, 영암 등) 지정에 따른 대기오염 줄이기 운동 방안의 하나로 통근버스 운행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셋째, 통근버스는 친환경 차량을 도입해야 할 것이며, 차량구매 등은 산단 협의회, 행정당국(전남도, 목포시, 영암군)과 지방의회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운

- 영위원회를 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체계가 정비되어야 함
- 통근버스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 기업 및 유관기관 네트워크 강화와 노동인권 존중 문화 확산, 민관 협치 활성화 필요
- 넷째, 통근버스 운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으로 ‘산단 통근버스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속해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 현재 대불산단 노동자들의 통근에 걸리는 시간 등을 기준으로 통근버스의 필요성에 의문 제기 여지도 있으나, 조선업의 불황으로 관련 업종도 함께 침체한 상황(2013년 4분기 전체 노동자 12,936명에서 2019년 3분기 7,196명으로 감소, 출처 :한국산업단지공단, 산업단지 통계, 전국산업단지 현황통계 각 연도 참조)을 전제, 경기 활성화가 되면 또다시 노동자 수 증가 등으로 출퇴근 때 교통체증, 사고위험과 대기환경 오염의 심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함

3) 조식 식당 설치 운영에 관한 지원 방향

- 조식 식당 설치는 노동자의 건강권 보호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복지 등 노사상생 인식에서의 접근과 민관 협치 활성화 필요
- 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의 절반가량이 아침을 거르고 출근한 것으로 나타났고, 아침을 거르는 이유로 환경요인도 상당한 작용을 하고 있음에 유념하여야 함
- 불규칙, 불균형적인 식사는 노동자들의 건강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쳐 생산성 저해 요인이 되며, 점심을 폭식하거나 간단히 때우는 경우 영양 불균형으로 인한 건강장애로 이어질 수 있음
- 노동자의 비용부담 최소화 방안을 고려해야 함
- 조사 결과, 무료제공 희망은 전체 응답자의 16%, 1000원~1200원 60%인 점을 고려하여, 적정 개인 부담 비율(지원 금액)을 정하고, 일정 기간의 이용률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증, 감액을 고려해야 함
- 간편식(김밥, 토스트, 샌드위치, 떡 등)을 제공하는 식당 설치 산단 내 공동시설을 이용하거나, 사업장 주변의 식당을 시간제로 임차, 판매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야 함
- 시간제는 오전 6시 50분부터 7시 30분 전후로 1시간가량, 산단 내 민간 식당

- 을 임차 활용, 공공건물 내 설치 등을 생각할 수 있음
 - 간편식 제조, 판매 등은 청년 일자리, 사회적 기업(실버인재활용) 등의 참여방식이나 방안을 고려할 필요 있음
- 간편식은 식품위생 준수와 노동자의 건강 장애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이 필요
- 민간 식당 외에 간편식의 푸드 트럭 판매에 관해서는 식품위생 점검이 정기적, 지속해서 이루어져 식중독 등을 예방할 필요가 있음

IV. 맺으며

여수산단은 1979년 완공된, 단일 석유화학단지로는 세계 1위, 동양에서 가장 큰 규모이며, 울산산업단지와 어깨를 나란히 할 정도의 굴지의 산업단지이며, 한화케미칼, LG화학, 대림산업, 롯데케미칼, 바스프 등을 비롯한 대기업과 굵직한 외국계 회사를 비롯하여 283개 사업장이 들어와 있다. 올해부터 내년에 걸쳐 2년간 플랜트 신설 및 보수작업에 약 2만 7천 명의 플랜트건설 노동자가 일시에 산단으로 몰려들 예정이다. 작업 내용상 오염, 유해 물질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 보니 긴급히 작업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편의(산업 환경, 노동복지차원에서)시설 점검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실태 파악을 위해 우리 센터는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여수지부의 의뢰로 가장 필요한 작업복 세탁소라도 건립하자는 취지에서 수요조사를 하였다.

그리고 대불산단은 조선업의 경기가 서서히 살아나고 있어, 50인 미만의 소규모 영세사업장 노동자들의 열악한 작업 환경 점검과 정비-도장, 용접 등의 작업 과정에서 생기는 유해 물질에 노출된 작업복을 세탁할 곳-를 목적으로 전국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함께 작업복세탁소 등의 수요조사에 들어갔다.

본디 기획한 조사범위(영역)와 그 대상을 줄이고, 설문조사 문항도 핵심사항만을 묻는 정도로 간결하게 만들어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로 얻어진 결과는 노동권익의 신장과 산업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소한 갖춰져야 할 시설로 작업복세탁소가 두 산단의 공통과제이며, 여수산단은 샤워시설, 대불산단은 통근버스와 조식 식당이 필요성이 함께 대두되었다. 앞으로 이런 시설을 구체적으로 누가,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설치, 운영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필요하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조례제정이 바람직하다. 이때, 이 조사 결과와 정책적 제언이 조금이라도 참고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